2조

14012716 김성은

**컴퓨터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과 극복방안**

우리 사회는 이미 컴퓨터에 너무 의지한다. 빠른 입력, 빠른 검색 그리고 저장 또는 수정이 삶에 있어서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컴퓨터에 맹신한다고 느낄 수 있다. 그런 우리에게 컴퓨터는 종종 오류를 발생한다. 이런 현상을 보아 기계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.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. 인간이 실수를 하듯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역시 오류를 내를 수 있기 마련이다.

직접 경험을 토대로 예를 들면 컴퓨터에 입력한 내용이 사라져버린 경우다. 나는 취미로 블로그를 한다. 네이버 블로그엔 임시저장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용이 저장되는 고마운 기능이 있다. 나는 이 기능을 많이 의존하는 편이였다. 예를 들면 사진들을 다 업로드하고 다른 컴퓨터로 수정해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미리 글을 쓰고 다음날 추가해 업로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. 하지만 어느 날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 나의 믿음은 사라졌다. 포스팅을 다 끝내려던 찰나 인터넷 오류로 창이 꺼졌고 내가 입력한 정보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.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다.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나는 컴퓨터 탓을 하지 않았다. 미리 임시저장 버튼을 안 누른 나 자신을 탓하고 있던 것이다. 이게 바로 컴퓨터 맹신인가? 직접 느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컴퓨터를 결국 또 포스팅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.

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컴퓨터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도 늘 우리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. 물론 예전처럼 직접 손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내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릴 공간이 없다. 결국 어떤한 상황에는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. 고로 컴퓨터 100%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지만 이걸 극복하겠다고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.

이에 대한 개인적인 극복 방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컴퓨터를 발전해 나가는거다. 오류가 없는, 해킹이 불가능한 컴퓨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.